

[열매 맺는 아웃리치 3]

현장중심의 사역

조용백 선교사 / 2003 / 페이지 수: 2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땅은 한국, 미국, 아프리카 같은 실제적인 땅의 뜻도 있지만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같은 관념적 땅도 의미한다.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1차적 전도라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영역 등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까지가 완전한 선교다.

우리는 모두 전문인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에는 두 가지다 있다. 첫째는 영성(spirit)다. 둘째는 전문성(specialty)이다. 영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이나 지혜 등 은사를 주신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달란트를 주신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선교를 목사나 교인 일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2백여 국을 다니며 선교의 판도를 보게 하셨다. 옛날에는 영성이 준비된 목사가 신학을 배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선교였지만 오늘날 선교의 판도는 90퍼센트 이상이 전문인 선교다.

전문인 선교는 의사나 변호사, 정비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선교지에는 작은 배움이라고 갈급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선교지에선 탁월한 전문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탁월한 전문가다. 인간의 관점은 1등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59등도 60등을 위해 존재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등위 간 간격이 좁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마추어 기술자가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전문 선교의 출발인 것이다. 전문선교는 상대적이다. 세상이 나를 필요하게 여기면 나는 전문인이다. 이것이 바로 전문인 선교가 professionalism가 아닌 speciality인 이유이다.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사일

하나님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단기선교여행에서 크게 역사하신다.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사일이다. 선교지에 장기선교사를 보내 선교지에 심어놓은 것은 로마식이다. 현대 전쟁은 정탐을 보내고 전략적 거점 지를 안 후 그곳에 미사일을 쏘 80%를 없애고 다음 보병을 보낸다. 이것이 최소를 투자해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선교지도 처음 사전조사를 하고, 태권도 유아교육 등 그곳 사람들이 가장 온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을 아웃리치 팀에 넣어 보내 영적 교두보를 만든다. 단기선교를 5,6년 해 입양한 선교 지를 썩대밭으로 만들고 그 후 장기 선교사를 보낸다. 그냥 사역할 경우 장기 선교사가 모슬렘에 15명 모으는 사역이 15년에서 20년이 걸리지만 단기 팀이 가서 밭을 일궈놓으면 7~8년 정도로 기간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종교전문가인 목회자를 제외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98퍼센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98퍼센트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힘껏 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길 원하신다.

평신도에게 아웃리치를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할 때는 뜨겁지만 돌아와서 한 달 후면 그 열기가 식는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은 선교지 상황 때문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일만 하고 돌아왔어도 선교를 향한 열정이 6개월을 간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영적 전도만 하라고 이 땅에 부르시기 않았다.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전도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나 돌아와 생활에 연결되지 않아 금방 식는다. 그러나 직업현장에서는 자기 일을 하며 선교지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며 선교지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이 바뀐다.

선교지에 다녀오면 사람이 바뀐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멀리 보며 일을 하게 된다. 내 앞만 바라보면 날개가 퇴화해서 날 수 없다. 앞만 보면 비전은 퇴화하고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땅만 보인다. 내 앞만 바라보는 닭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멀리 쳐다보는 독수리가 되길 축원한다.

*** 출처 : 온누리신문**